신뇨엔 정초 한수행 호마의식 성료

신뇨엔 성지 오야소노와 세계정사 온라인 연결
개조 '자비실천행' 가르침 이어 새해 활동 다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교법인 신뇨엔(진여원眞如苑, 원주 이토신소)은 1월 28일 총본부 성지 오야소노를 비롯해 전 세계 신뇨엔 의처에서 많은 신도가 함께한 가운데, 2025년 정초 한수행 호마의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서울정사에서 교도들이 온라인으로 일본 현지 의식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종교법인 신뇨엔(진여원眞如苑, 원주 이토신소)은 1월 28일 총본부 성지 오야소노를 비롯해 전 세계 신뇨엔 의처에서 많은 신도가 함께한 가운데, 2025년 정초 한수행 호마의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서울정사에서 교도들이 온라인으로 일본 현지 의식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종교법인 신뇨엔(진여원眞如苑, 원주 이토신소)은 1월 28일 총본부 성지 오야소노를 비롯해 전 세계 신뇨엔 의처에서 많은 신도가 함께한 가운데, 2025년 정초 한수행 호마의식을 봉행했다. 이번 의식은 신뇨 게이슈사마(원주)의 집전 아래 토리카에 후계자를 비롯 직중 등이 함께 참석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신뇨엔 교도들은 일본 현지 뿐만 아니라 한국 서울정사, 부산정사 등에서 온라인을 통해 동참했다.

신뇨엔은 '신뇨 자구의 이타행(정진)을 세계 미래로'를 주제로 '한수행' 집중수행정진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호마의식에서는 신뇨엔 개조 이토신죠 교슈사마의 자비 실천에 대한 가르침이 강조됐다.

탐진치 여의는 수행과 실천행 강조

이토신죠 교슈사마는 생전 영상법문에서 "한수행은 탐욕(탐), 분노(진), 어리석음(치)을 정화하는 과정"이라며 "이를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한수행을 중심으로 실천하고, 1년간의 정진 방향을 정하여 탐진치를 정화함과 동시에 이렇게 얻은 결실을 타인에게 전하는 지혜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오늘 호마를 올렸으니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않음을 다짐하고 한수행을 이어가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식 후, 이토신소 신뇨엔 원주는 인사말에서 "신뇨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화합하고 결집하여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신뇨 교도의 길"이라며 "선배들이 구축한 신뇨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모든 교도들이 함께 정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뇨 영원의 등불과 정진의 맹세

이번 호마의식에서 수법된 호마 성화는 신뇨엔 이토신죠 교슈사마가 채화해 이어온 '신뇨 영원의 등불'로 이 등불에는 중생 구제의 의지와 염원이 담겨 있다. 이번 호마의식은 1989년 1월 28일 이토신죠 신뇨 교슈사마가 생전 마지막으로 호마를 수법한 날과 맞물려 더욱 뜻깊었다. 의식 후 서울정사에 모인 신도들은 "호마의 성화가 지혜의 빛이 되어 우리의 미래를 밝히고, 그 빛이 전 세계에 닿을 것"이라며 깊은 감사와 다짐을 표했다.

의식에서는 〈대반열반경〉 독송이 이뤄졌으며, 신뇨엔 전통적인 법의 착용 및 석장 흔들기 의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신뇨엔 교도들은 요령소리에 맞춰 독경하는 기도를 진행했다.

한편, 신뇨엔은 한국말로 진여원으로 불리며, 일본 진언종계 재가불교 교단이다. 1936년 창립해 도쿄에 총본부를 두고 있으며 대승이타행 실천과 내면의 불성을 깨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의 서울정사와 부산정사를 중심으로 한국에서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 11월 일본 도쿄도 다치카와시 총본산 중창불사를 성료할 예정이다.

"복 짓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월정사 신년하례 법회 봉행
2월 2일 경내 법륜전서 열려
심재국 평창군수 등 참석해

명상치유 문화의 성지 오대산 월정사(주지 퇴우 정념 스님)는 2월 2일 경내 대법륜전에서 불기2569년 을사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신년하례법회에는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을 비롯해 심재국 평창군수와 군 관계자, 월정사 사부대중 300명이 참석했다.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리가 시비분별을 내려놓고 연기된 관계임을 인식하며 마음을 모은다면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이다. '푸른 뱀의 해'에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드러내고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여의면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지만, 복은 그냥 받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복 짓는 일(作福)을 저금하듯이 해야 복을 받는다. 우리사회의 전환기에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지혜롭게 깨어서' 우리의 일상과 국가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축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혼란스러운 정치, 사회, 경제는 국민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면서 "부처님이 설파하신 자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면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회는 부처님전 삼배, 승가전 삼배, 봉행사, 축사, 주지스님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심중무일물(心中無一物, 본래 마음에는 어떠한 번뇌도 없다)' 한암 스님 휘호가 담긴 복주머니를 참가자 전원에게 전달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오대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국립공원공단에서 '국립공원의 문화적 가치와 전 국민의 휴식처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주지 퇴우 정념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월정사는 같은 날 경내 대법륜전에서 제68회 출가학교 졸업식을 개최하고 2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신중일 기자



월정사 신년하례법회에는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한 300여 명이 동참했다.

5천여 베트남인, 원오사서 설맞이 법회

1월 29~30일, 경내 일원서
전통음식 나눠 먹고 놀이 즐겨



천안 베트남 원오사가 국내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설 명절 법회를 봉행하고 고향의 향수를 달랬다.

천안 베트남 원오사(주지 뜨엉탄 스님)는 1월 29~30일 양일간 경내 일원에서 설 명절 법회를 진행했다.〈사진〉 베트남은 한국과 같은 음력설을 새해로 지내는 풍습을 지니고 있다.

이날 법회에는 전국 근원각지에서 베트남인 5000여 명이 모였다. 원오사에 모인 이들은 동향 사람들과 안부 인사를 나눴다. 이후, 베트남 설날 전통음식인 '반쯩(Bánh chưng)'과 쌀국수를 나눠 먹고 대나무 춤, 사자춤 등 베트남 전통놀이·공연을 즐겼다. 명절 마지막 행사는 복권 추첨으로 최고급 휴대폰, 전기 자전거, 전기밥솥 등 다양한 경품을 동참 대중에 선물했다.

뜨엉탄 스님은 "한국과 베트남 불자들이 함께 새해를 맞이하며 나눔과 화합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2025년 새해에는 사찰주변에 구입한 부지에 불교 수행공간, 다문화 2세대를 위한 교육시설, 양로원 불사로 사격을 진일보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천안불교사암연합회 총무국장 법연 스님(태학사 주지)은 "원오사가 여러분이 한국에 계시는 동안 큰 힘이 될 수 있는 사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전북 불교계 복지관, 설 맞이 떡국 나눔

1월 24일, 어르신들 대상으로
지역기관 협력 · 후원 통해 진행



민족 명절 설을 맞아 전북 불교계 복지관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떡국 나눔 행사를 열었다.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금산사복지원(대표 화평 스님) 산하 서원노인복지관(관장 석초 스님)은 1월 24일 관내에서 복지관 회원 및 지역 어르신 400여 명을 위한 떡국 나눔 행사를 열었다.〈사진〉

서원노인복지관장 석초 스님은 "설날은 가족을 비롯해 이웃 간 정을 나누는 명절로 이번 떡국나눔에서 어르신들이 행복을 느꼈길 바란다"면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해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지구에도 깊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순자(79) 어르신은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을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든든하고 기쁘다"면서 "복지관과 후원해준 분들 덕분에 이번 설이 따듯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선운사복지재단(대표이사 경우 스님)이 운영하는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관장 해봉 스님)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설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열었다.

고창농협과 고창농가주부모임의 후원을 받아 개최된 행사에서 복지관은 어르신들에 떡국과 음료, 과일 등을 대접했다.

관장 해봉 스님은 "지역 어르신 및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안성 법계사 화재…대웅전 전소

2월 3일, 인명 피해 없어



2월 3일 경기 안성 법계사(주지 도윤 스님)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화재로 대웅전 1개동이 전소됐다.〈사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한 경기도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된 불화 2점은 다른 건물에 보관돼 있어 손실을 면할 수 있었다.

현재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법계사는 지난해 4월 만공스님의 유품을 포함해 총 9점의 불교유물을 덕숭총림 수덕사 근역성보박물관(관장 주경 스님)에 기증한 바 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대원산업
BULJE DAEWON CO.LTD

구 입 문 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